

Overweight
(Maintain)

전기전자

Analyst 김지산

02) 3787-4862 jisan@kiwoom.com

이슈 코멘트

전기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결정이 미칠 영향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에 대해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을 전격 결정했다. 발화 원인은 배터리 셀 문제로 판명됐다.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일회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신속한 대응에 따라 우려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다. 설계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2주 후에는 정상화되는 만큼 출하 차질이 제한적일 것이다.

>>> 갤럭시 노트7 전량 교환 결정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전량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교환 대상 제품은 통신사와 매장 보유 재고를 포함해 250만대다. 자재수급과 제품을 준비하는 데 2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초도 출시한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10개국에서 일시적으로 판매가 중단되고, 주요 유럽 국가 출시 일정도 늦춰질 것이다.

발화 원인은 배터리 셀 자체 문제이고, 초기 제품에 한해 제조 공정에서 셀 내부의 눌림 현상이나 절연 테이프의 일부 수축 현상 등으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일회성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신속하고 전격적인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우려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 삼성SDI 부정적, 다른 부품 영향은 제한적

갤럭시 노트7용 배터리는 삼성SDI가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중국 ATL이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SDI는 리콜 비용 부담, 일시적인 점유율 하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과거 휴대폰 배터리 사고로 인한 리콜 때 배터리 업체가 대당 30~50달러를 지불한 선례가 있고, 이를 적용한다면 삼성SDI가 부담하는 금액은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다. 공정 전환에 따른 생산 차질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업계의 경우 별도의 설계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2주 후에는 정상화가 가능한 만큼 출하 차질은 제한적일 것이다.

발화 사건 이전에도 터치 방식 변경에 따른 디스플레이 수율 이슈로 인해 병목 현상이 존재했고, 부품 출하가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부품 재고를 2주에서 많게는 4주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부품 업계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당초 기대했던 갤럭시 노트7 조기 출시 효과가 소멸됐고, 부정적인 환율 동향까지 감안하면 휴대폰 부품 업체들에 대한 3분기 실적 추정치는 일부 하향돼야 할 것이다.

- 당사는 9월 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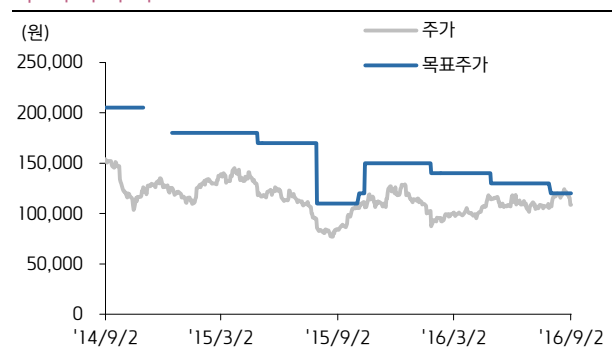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의견 변동내역(2개년)

종목명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삼성SDI (006400)	2014/07/22	BUY(Maintain)	205,000원
	2014/09/30	BUY(Maintain)	205,000원
	2014/10/31	BUY(Maintain)	205,000원
담당자 변경	2014/12/15	BUY(Reinitiate)	180,000원
	2015/01/27	BUY(Maintain)	180,000원
	2015/03/25	BUY(Maintain)	180,000원
	2015/04/13	BUY(Maintain)	180,000원
	2015/04/29	BUY(Maintain)	170,000원
	2015/05/27	BUY(Maintain)	170,000원
	2015/06/17	BUY(Maintain)	170,000원
	2015/07/31	Outperform(Downgrade)	110,000원
	2015/09/14	Outperform(Maintain)	110,000원
	2015/10/05	Outperform(Maintain)	120,000원
	2015/10/14	BUY(Upgrade)	150,000원
	2015/11/02	BUY(Maintain)	150,000원
	2015/11/03	BUY(Maintain)	150,000원
	2015/11/24	BUY(Maintain)	150,000원
	2015/12/16	BUY(Maintain)	150,000원
	2016/01/26	BUY(Maintain)	140,000원
	2016/03/17	BUY(Maintain)	140,000원
	2016/04/29	Outperform(Downgrade)	130,000원
	2016/06/02	Outperform(Maintain)	130,000원
	2016/06/14	Outperform(Maintain)	130,000원
	2016/07/19	Outperform(Maintain)	130,000원
	2016/08/01	Outperform(Maintain)	120,000원
	2016/09/05	Outperform(Maintain)	120,000원

목표주가 추이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5/6/1~2016/6/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59	96.36%
중립	6	3.64%
매도	0	0.00%